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95 호 현대불교
2022년 7월 13일(음 6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참자기의 그릇을 알고 그저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 보라

주인공 맛을 보고 싶어요

질문 선원에서 공부한 지는 몇 년 됐는데 아직 그 주인공 맛을 못 보고 있어 답답합니다. 뭔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답변 지금 선생님 영혼이 없으면 그 몸뚱이가 송장이 돼서 말도 못 할 텐데, 그걸 모르세요? 바로 뿌리와 싹이 한데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알고도 싶고요. 그런 거니까 자기 영혼의 뿌리를, 즉 말하자면 불성을 진짜로 믿고요, '다른 데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바로 밀접하게, 뿌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구나. 그러니 진짜로 믿어야겠다.' 하고 거기다가 전부 놓으십시오. 이 생활하는 것을 몽땅 말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이 세상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지 탄생을 안 했더라면 무효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아예 이름조차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탄생을 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것이지 아, 싹이 없는데 무슨 뿌리가 있겠습니까? 뿌리도 싹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뿌리를 진짜 믿으시고 '이끌어 가는 것도 너고, 또 나를 형성시킨 것도 너니까 깨닫게 하는 것도 너다.' 이렇게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으시고 겸손하게, 진짜 자기 그릇대로 사세요. 그릇대로, 참자기의 그릇을 아시고 그저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 보세요. 그런다면 반드시…, 그건 거짓이 없습니다. 영원한 자기의 보배인 부처는 거짓이 없어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우연히도 없고요, 아주!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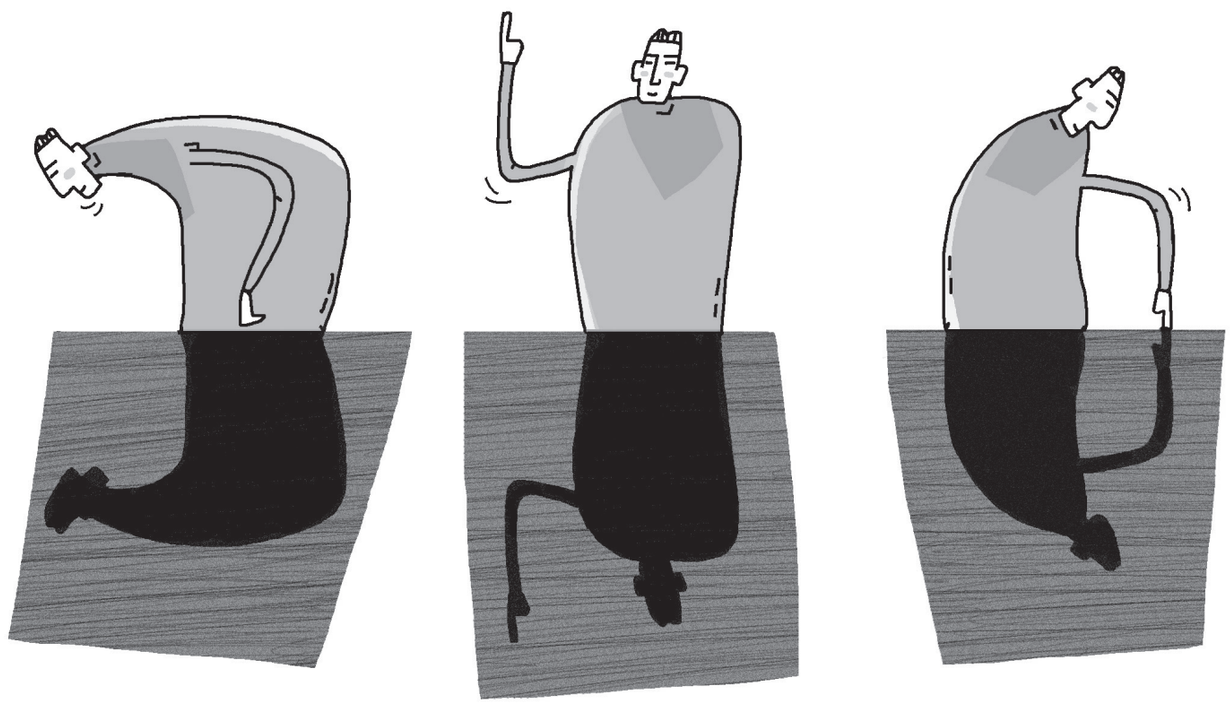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함이 없이 하는 도리에 대해

질문 큰스님의 법문에서는 함이 없이 하는 도리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되는 듯하다가도 알쏭달쏭합니다. 다시 한번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냥 우리가 똥 마려우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똥 누고 시원한 느낌을 느끼고, 또 배고프면 밥 먹고 그냥 '배고프지 않구나' 하는 거, 그냥 무심코 가는 거, 졸리면 그냥 자는 거…. 그렇듯이 우리 생활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함이 없이 공했으니까 함이 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함이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소리는 정말 50% 그 정신계의 모든 거를 하고 갈 수 있으니깐 함이 없다 이런 거지, 물질계로다가 우리가 함이 있다면 그건 진짜 함이 아닌 것이에요. 물질계로만이 아니라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나와서 움죽거리게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그대로 그냥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함이 없이 하고 있다. 나 아닌 내가 살고 있고 함이 없이 함이 있구나 하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이지 함이 있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혼합돼서 둘 아니게 수레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것이 그냥 공법이다 하는 거죠. 모두를 종합해서 따지게 되면, 그래서 원식으로 하는 거죠. 이 우주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걸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일으키고 꺼내 쓰고 용도에 따라서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함이 없이 하고 있구나. 그것이 진짜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생각하는 것이 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알았다면 그냥 함이 없이 하고 재미있게 웃고 사세요.

내가 이만큼 아니깐 자만한 마음도 갖지 말고요. 자만한 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도 없고, 내가 할 것도 없고, 내가 준 것도 없고, 내가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물 흘러가듯 사세요. 꽃이 피면 웃고 열매가 맺히면 대견하게 보고 또 그 열매가 무르익으면 모두 배고픈 사람 주고 이렇게 사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훌쩍 이 지구라는 이 그릇을 벗어날 수가 있겠지요.

눈 뜨고 저 불빛을 보고 저 천장을 봐 보세요. 천장에도 황 뚫렸어요. 천장도 막혀 있는 게 아니라 황 뚫렸다고요. 저 문도 닫혀 있는 걸로 보이지만 사방이 다 뚫렸어요. 그래서 허공이 따로 있고 이 집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사람인 거죠. 이거 문 열고 다니고 문 열고 누구 건져 주고 이러려면 어느 천년에 합니까, 그거를.

자성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질문 보통 불자라면 삼귀의, 즉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께 귀의하는 삼귀의를 하게 되는데 자성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보면 느껴지고, 들으면 느껴지고 그렇게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알아지는 그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면, 그대로 우리가 믿고 여여하면요, 그렇게 아예 한마음으로 그냥 하면 그 세계가, 삼세계(三世界)가 바로 삼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삼세계가 삼보가 되는 것입니다. 삼보가 한데 합쳐서 일심(一心)이 되는 것입니다. '삼보'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합친 것이 삼보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써 꼭 알아야 될 것은 '큰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보배가 바로 나한테 있다. 그래서 삼보가 내 한마음 속에 있으니 부처님과 일체 만물만생이 어찌 따로 떨어져 있으랴. 한도량에 있는 것이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육신, 육바라밀이라고 해도 됩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에 관한 건을 모두 따로따로 할 양으로 애를 쓰면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보시라든가 지계라든가 인욕이라든가 정진, 선정 이런 문제를 다 각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러나 내 몸뚱이 속에는 그 여섯 가지뿐만 아니라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왜 여섯 가지뿐이겠습니까. 여섯 가지를 정해 놓는다면 더 이상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스스로 한마음에다 모든 거를, 선도 감사하게 놓고 악도 그렇게, '악하게 되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선하게 나오는 것도 너다.' 하고 선과 악을 다 놨을 때 비로소 스스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콩이나 팥에다 목적을 두는 게 아닙니다. 콩과 팥, 일체를 모두 다 한데 합쳐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현도 되고, 법신도 되고, 부처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칠성도 되고, 아촉도 되고, 아미타도 되고, 미륵도 되고 전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마음 속의 자생 중생들에게 항복을 받아야, 조복을 받아야 일체 중생들을 나 아님 없이 조복을 받게 할 수 있느니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색이 즉 공이다. 공이 즉 색이니라. 그러니 둘이 아니다. 그대로 더불어 사는 한 공체(共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심(共心)이자 공체(共體)이자 공용(共用)이자 바로 공식(共食)이자 공생(共生) 아닙니까? 이것이 '나'라고 내놓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나'라고 내놨다 하면 손해가 가요.

여기 수만 명이 이렇게 한데 합쳐서 살고 있는데, 그걸 바다라고 합시다. 바다가 이거는 내 물이고, 그거는 내 물이고, 저거는 내 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물을 떠 가도 '아, 떠 가나 보다.' 할 뿐이죠, 줄지 않고 더불어 살기 때문에,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바다라면 내 마

☞ 22면으로 계속

